



오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접수 개시

- 8.13.(수)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 통해 환급접수 -
- 환급 신청순으로 8.20.(수)부터 첫 환급 시작 -
- 전국 가전대리점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오늘(’25. 8. 13. (수))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된다.

<제출서류별 사진 예시>

등급라벨	명판	거래내역서	결제영수증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

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오늘 환급신청을 하고,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순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가전제품 매장 내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리로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홈페이지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8월 20일부터 차질없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급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환급하고,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으뜸효율.kr> 또는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5140)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